

세계사의 맥락에서 본 20세기 초 내륙아시아 조사 활동 —스벤 헤딘과 오타니 고즈이—

시라스 조신

I. 머리말

II. ‘영러협상’과 ‘삼국협상’

III. 스벤 헤딘의 티베트 잠입

IV. 오타니 고즈이의 北京에서의 對清交渉

V. 헤딘, 티베트 시가체에서의 체류

VI. 영국 · 영국령 인도 정청의 오타니 고즈이의 티베트 조사 거부

VII. 영국 · 영국령 인도 정청의 오타니 탐험조사대
카라코람 고개 통과 거부

VIII. 오타니 고즈이의 영국에 대한 저항

IX. 맺음말

전 일본 히로시마대학원(広島大学大学院) 교수

세계사의 맥락에서 본 20세기 초 내륙아시아 조사 활동

— 스벤 헤딘과 오타니 고즈이 —

시라스 조신(白須淨眞)

I. 머리말

세계사에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은 ‘내륙아시아 탐험의 시대’로, 탐험·조사대의 활동 루트를 따라 내륙아시아에서 역사고고 자료 대부분이 발견되었다. 당시 탐험과 조사가 이루어진 내륙아시아, 즉 동투르키스탄(新疆省)과 티베트(西藏)의 대부분은 淸나라의 영역이었다. 비록 쇠락해가는 청이었지만 외국의 탐험·조사대가 마음대로 루트를 결정하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내륙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열강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청나라와의 복잡하게 얽힌 국제정치가 놓여 있어 실제 탐험과 조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당시 탐험·조사대가 내놓은 역사고고 자료를 이러한 국제정치와 연관하여 이해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고에서는 러일전쟁 이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에 실시된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 1876~1948)의 아시아 광역 조사 활동¹과 스벤 헤딘(Sven Anders Hedin, 1865~1952)의 서부 티베트 조사 활동에 미친 국제정치 사회의 여러 제약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001년 처음 발견된 오타니 고즈이의 아시아 광역 조사 활동과 관련된 일본 외무성 外交史料館의 외교기록, 영국령 인도 政廳의 외교기록, 오타니가 헤딘에게 보낸 편지 등 새로운 자료 연구가 이루어졌다.²

1 일명 ‘오타니 탐험대’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와 관련한 것은 러일전쟁 후 2차, 3차 오타니 탐험대이다. 오타니 탐험대, 즉 오타니 고즈이 아시아 광역 조사 활동의 전모는 白須淨眞, 『大谷探検隊研究の新たな地平 アジア広域調査活動と外務省外交記録』(勉誠出版, 2012), p. 16 참조.

2 그 성과들은 다음의 저서에 수록되어 있다.

① 白須淨眞 編, 『大谷光瑞と国際政治社会 チベット, 探検隊, 辛亥革命』(勉誠出版, 2011)

② 白須淨眞, 앞의 책(2012)

③ 白須淨眞 編, 『大谷光瑞とスヴェン・ヘディン 内陸アジア探検と国際政治社会』(勉誠出版,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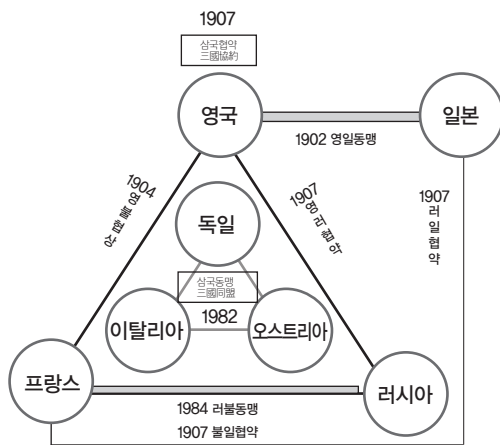
이하 인용 시 白須淨眞 編①, 白須淨眞②, 白須淨眞 編③으로 표기한다.

II. ‘영러협상’과 ‘삼국협상’

러일전쟁(1904~1905) 이후 국제사회는 1907년 영국과 러시아의 협상이 성립되면서 급변했다.³ ‘英露協商’으로 양국 간 백여 년의 대립이 해소되고 영국·프랑스·러시아의 ‘삼국협상’이 이루어져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의 ‘삼국동맹’과 대치하였다는 것을 뜻한다^{도 1}.

영·프·러 ‘삼국협상’의 성립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미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맹 관계, 프랑스와 영국이 협상 관계이었지만 영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데 큰 장애가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영국과 러시아는 티베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립하였다. 즉 유럽의 발칸 문제 이전에 아시아의 티베트 문제가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영국은 티베트를 침공해 ‘라싸(Lhasa)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티베트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도 2}.⁴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는데다, 대응할 수 없는 전쟁 중에 티베트를 침공했으므로 영국에 대한 러시아의 불신은 한층 커졌다. 그러나 영국



도 1. 러일전쟁부터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의 국제정치사회



도 2. 라싸에 침공한 영국군, 1904년 8월 4일

³ 여러 양국이 티베트 문제를 해결한 조약은 “英露協商”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조약의 공식 명칭은 ‘CONVENTION BETWEEN GREAT BRITAIN AND RUSSIA RELATING TO PERSIA, AFGHANISTAN, AND THIBET(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및 티베트에 관한 영러조약)’이다. 공식 명칭이 아닌 “영러협상”으로 통용되는 것은 명칭의 길이도 있지만 ‘삼국협상’과 대치하는 “영국·프랑스·러시아 삼국 협상”의 前提로서 이 조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즉, 근대 유럽사의 입장에서 당시 아시아 세계를 인식한 점을 인지해야 한다. 白須淨眞 編③, p. 32의 주(4) 참조. 다만 본고에 서는 표기 관계상 영러협상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용 조약의 영문 명칭과 번역은 外務省条約局編, 『英, 米, 仏, 露ノ各国及支那国間ノ条約』(1924)에 따른다. 위 책에 티베트 표기는 TIBET, TIBIT, THIBET등으로 다양하지만 원문에 따른다.

⁴ 조약의 영문 명칭은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GREAT BRITAIN AND TIBET’이다. 본고에서는 통칭 ‘라싸 조약’으로 표기한다.

은 1905년 러시아의 전쟁 패배와 발칸 정세에 대한 두려움을 교묘히 이용해, 러시아의 영국에 대한 불신이라는 장애를 일시에 해결하려 하였다. 영국은 러시아와의 교섭에 앞서 먼저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고, 1906년 4월 27일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침공으로 심각하게 대립하던 중국과의 틈을 메우는 ‘티베트에 관한 영·청조약(西藏に関する(英清)条約)’을 조인하였다.⁵

그 성과를 전제로 영국은 러시아와 교섭에 나서 양국이 모두 티베트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즉 양국이 티베트에서 손을 떼고 티베트를 양국의 완충지대로 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중국과 합의해 영국이 티베트를 양보한 것처럼 러시아도 티베트를 양보함으로써, 영국과 러시아가 함께 양보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러시아가 이 제안에 합의하는 동시에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이해도 조정하여 영국과 러시아 간 백여 년의 응어리가 일시에 불식되었다. 이것이 바로 일명 ‘영러협상’으로, 공식 명칭은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및 티베트에 관한 영러조약(CONVENTION BETWEEN GREAT BRITAIN AND RUSSIA RELATING TO PERSIA, AFGHANISTAN, AND THIBET)’이다.⁶

조인은 1907년 8월 31일 페테르스부르크(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영러협상’은 영국과 러시아 간에 티베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영러협상’의 성립 없이는 ‘삼국협상’ 역시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 티베트에 문제가 발생하면 ‘영러협상’은 물론 ‘삼국협상’에도 여파가 미치도록 연동되는 구조였다. 티베트는 일견 유럽과 무관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아시아 내륙의 땅이지만, 당면한 위기인 발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였다. 영국과 러시아 양국이 티베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Ⅲ. 스벤 헤딘의 티베트 잠입

저명한 스웨덴의 탐험가 스벤 헤딘은 이전부터 티베트의 라싸에 가고자 했는데, 1906년 8월 14일 중국의 여행 護照도 없이 게다가 영국의 제지를 뿌리치고 영국령 인도에서 티베트로 잠입했다고 3. ‘영국 정부가 티베트의 영토를 병합하지 않고 티베트의 施政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티베트에 관한 영청조약’이 비준되고 불과 19일 지나서 일어난 사건이었다.⁷

한편, 헤딘은 티베트에서 활동하기 위해 중국의 여행 허가를 일본의 탐험가 오타니 고즈이에게

5 조약의 영문 명칭은 ‘CONVENTION RESPECTING TIBET(TO WHICH IS ANNEXED THE CONVENTION, BETWEEN UNITED KINGDOM AND TIBET, SIGNED AT LHASA, SEPTEMBER 7, 1904)’. 중국에서는 ‘中英統訂藏印条約’이라고 표기하고 ‘英清北京条約’이라는 명칭도 있다. 본고에서는 ‘西藏에 관한 (英清)条約(1906)’으로 표기한다. ‘中英統訂藏印条約’의 용례는 田涛·主編, 『清朝条約全集』第三卷(影印本, 黑龍江人民出版社, 1996) 참조.

6 全文은 外務省条約局 編, 앞의 책(1924), pp. 338-344.

7 Hedin, Sven, *Trans-Himalaya*, vol. I, p.377, 409.

부탁했다. 오타니는 베이징으로 가서 일본 공사관의 지원을 얻어 직접 청국 외무부에 티베트 체류 중인 헤딘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다. 두 차례의 요청⁸ 가운데 오타니 고즈이가 직접 관여한 것은 1907년 4월 13일이었다. 당시 1906년 ‘티베트에 관한 영청조약’에 기반해 ‘영러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영국과 러시아가 페테르스부르크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영러협상’ 중 ‘티베트에 관한 협정’ 제1조가 바로 ‘양 체결국(영·러)이 티베트의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그 내정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티베트와 관련된 헤딘과 오타니의 직접적인 행동에 관련 국가들은 매우 곤혹스러웠다. 그리고 영국과 청국이 합의했고 이제 영국과 러시아 간에 합의하려 하는 티베트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의심했다. 헤딘도 오타니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음에도, 두 사람이 국제정치에 의해 제약을 받는 계기를 만든 것은 틀림없다. ‘영러협상’(1907)이 조인되는 과정에 이즈볼스키(Izvolsky A.P., 러시아 외무대신)와 니콜슨(러시아 주재 영국 특명 전권대사)이 교환한 공문에는,



도 3. 엄동의 티베트(창탕고원)를 나아가는 헤딘탐험대

본 공문의 일자[1907년 8월 31일]부터 3년간은 어떠한 학술 파견원도 티베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⁹

라고 적혀있다. 이는 영국과 러시아가 티베트에 대한 학술 조사를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헤딘이 영국의 제지를 뿌리치고 티베트로 잠입한 것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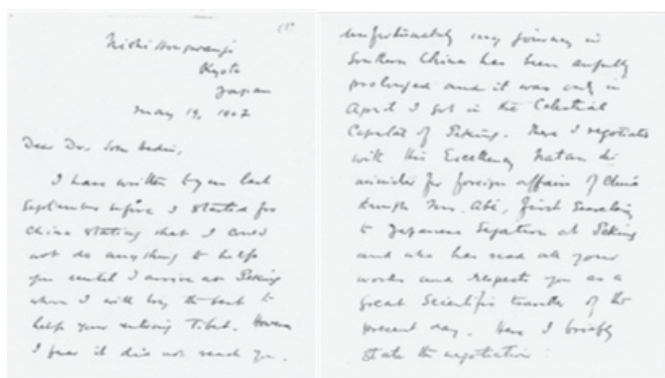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내륙아시아 탐험 조사 활동에는 외교적 제약이 확실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IV. 오타니 고즈이의 北京에서의 對清交渉

헤딘의 의뢰를 받아 오타니는 베이징에서 청국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였다. 교섭의 상황을 1907

⁸ 오타니 고즈이가 교섭하기 전 오타니의 측근 渡辺哲信이 관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白須淨眞 編③, pp. 61-63.

⁹ 外務省条約局 編, 앞의 책(1924), pp. 340-341.



도 4. 오타니 고즈이가 헤딘에 보낸 1907년 5월 19일자 서한

년 5월 19일자 오타니가 헤딘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4.10}

불행히도 여행이 너무 길어져 4월이 되어서야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베공사(阿部公使)를 통해 청의 외무부대신(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China) 나룽(那桐)과 교섭했습니다. 아베씨는 베이징 공사관의 일등서기관(First secretary to Japanese Legatory)으로 당신의 저작을 전부 읽고 당신을 위대한 과학적 탐험가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1954년 발간된 『鏡如上人年譜』에 따르면, 오타니는 1906년 9월 26일 중국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을 출발해 각지를 답사한 후 베이징으로 향했다.¹¹ 1907년 4월 11월 베이징에 도착하여 같은 달 22일 베이징을 떠났다.¹² 그는 16일에는 중국의 皇族 중 실력자였던 慕親王(愛新覺羅溥偉, 1880~1936)과 肅親王(愛新覺羅耆耆, 1866~1922)을 만났으며,¹³ 17일에는 西太后와 光緒帝를 알현하였다. 이처럼 베이징 체류 기간 중 오타니는 청의 주요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본고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것은 4월 13일의 기록이다.

13일 瞿鴻禨와 那桐 두 大臣을 방문해 자수 작품(繡額)을 선물하였다.

¹⁰ 현재까지 확인된 오타니가 헤딘에게 보낸 편지는 모두 8통이다. 白須淨眞 編③, pp. 238-257.

¹¹ 1906년 9월 27일, 神戶를 출발해 上海, 杭州, 漢口, 鄭州, 西安, 成都, 重慶, 巴東宜昌, 沙市, 漢口, 上海, 香港, 廣東, 香港, 上海, 漢口, 河南, 北京, 長城, 山海關, 營口, 奉天, 大連, 旅順, 大連을 방문했다. 1907년 5월 4일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¹² 연보의 근거로 『北京特信』, 『教海一瀾』, 342호, pp. 25-27 등이 있다. 『教海一瀾』는 당시 오타니 고즈이가 주지로 있던 西本願寺 教團의 情報誌이다.

¹³ 오타니를 방문한 慕親王은 초대 慕親王奕訢이 1898년 타계했으므로, 제2대 慕親王溥偉일 것이다. 이는 北京大의 田衛衛氏의 敎示를 따른 것이다. 지면을 통해 감사를 전한다.

이는 오타니가 헤딘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베 공사를 통해 청국 외무부 대신 나통과 교섭했다’는 것과 연관된다. 나통(那桐, 1857~1925)은 당시 청나라의 高官 중 한 사람이었다^{도 5}.

최근 공개된 『나통일기(那桐日記)』(北京: 新華出版社, 2006) 중 光緒 33년 3월 초에 “初一日 早進內 外務部值日 十點 日本大谷伯爵光瑞來拜”라는 기록이 있다. 광서 33년 3월 ‘初一日’은 1907년 4월 13일에 해당한다. 나통이 日直을 하던 중 10시경 오타니 고즈이가 외무부를 방문했다는 내용이다. 『나통일기』의 기록이 간략하고 아베 공사가 동행한 내용은 없지만, 오타니가 나통을 방문한 것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나통에게 主賓은 오타니였다.

또한 당시 나통의 직위가 外務部會辦大臣이었으므로, 고즈이가 말한 ‘청나라 외무부 장관(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China)’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¹⁴

단, 『鏡如上人年譜』에 오타니가 방문했다고 전하는 ‘瞿鴻禨’이라는 인물은 당시 중국의 官界에서 찾아볼 수 없어, ‘瞿鴻禨’는 ‘瞿鴻機’의 誤記로 보인다. 瞿鴻機는 1901년 7월 24일 外務部 尚書會辦大臣의 지위에 올랐고 1907년 4월 13일 당시는 軍機大臣을 겸했던 유명인이었다.¹⁵ 나통에 비견되는 高位職 官僚(『鏡如上人年譜』에서 언급한 兩大臣)였기 때문에 그가 교섭 자리에 함께했을 가능성도 있다.¹⁶

그런데 문제는 4월 13일의 교섭에서 헤딘의 저서를 섭렵하고 그를 존경하고 있던 北京의 일본공사관의 一等書記官 아베 모리타로(阿部守太郎)를 통해 시작되었다. 아베는 앞서 언급한 저서 白須淨眞 編①과 白須淨眞②에서 인용한 外務省 외교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외무성 政務局長 아베 모리타로와 동일 인물이다.¹⁷



도 5. 나통(那桐)의 사진

¹⁴ 오타니는 회담 이후 4월 19일(음력 3월 7일) 나통의 만찬회에 초대를 받았다. 『那桐日記』의 19일자(p. 579)에는 “晚約日本大谷伯爵昆玉及林使等七人小酌”이라고 쓰여 있다. ‘昆玉’은 형제에 대한 존칭으로 당시 오타니 고즈이를 수행하던 동생 오타니 손유(大谷尊由)를 가리킨다. 그리고 ‘林使’는 하야시 곤스케(林樺助) 在清特命全權公使이다.

¹⁵ 中国第一歷史档案馆·福建師範大學歷史系, 『清季中外使領年表』(中華書局, 1985), p. 222. 그리고 『清史稿』 卷437에 列傳이 있다.

¹⁶ 이 추정의 근거로 일본 공사와 회담할 때 瞿鴻機가 출석한 기록이 『那桐日記』, pp. 595-597에 적혀있다.

¹⁷ 白須淨眞 編①의 ‘索引’과 白須淨眞②의 ‘人名索引’ 참조. 아베 모리타로(阿部守太郎)는 1905년 6월 일등서기관으로 청국 공사관에 부임했다. 明治期外交資料研究会編, 『外務省制度・組織・人事關係圖書集』 第4卷 - 外務省年鑑 明治四三, 四四年版(クレス出版, 1995), p. 112. 그리고 1907년 5월 15일, 아베는 일등서기관이면서 臨時代理公使(사실상의 공사)를 겸하였다. 그래서 같은 해 4월 13일 교섭 중에 오타니가 아베를 일등서기관이라고 하고, 5월 19일 헤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아베를 공사라고 쓴 것이다.

1912년 아베는 일본으로 귀국해 외무성 정무국장이 되었지만 불행히도 1913년 9월 5일, 東京 赤坂의 靈南坂에서 對中國 強硬論者에 의해 42세의 나이에 암살되었다.¹⁸

헤딘이 오타니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과의 교섭을 의뢰한 것은 이미 언급했듯이 티베트 조사가 거부되어 고민하던 시기로, 당시 그는 영국령 인도의 심라(Shimla)에 있었다. 이는 아베 일등서기관이 나툼에게 “헤딘이 인도를 떠나기 전, 오타니 백작에게 편지를 보냈다”(No.3 서간, 50~52행)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타니와 아베가 중국과 교섭하던 때에 이미 헤딘은 본국의 의향을 따르면서도 그를 이해하던 인도 총독 민토(Minto) 백작의 재량으로 티베트에 잠입해 있었다. 따라서 1907년 4월 13일 오타니와 아베가 나툼과 만나 교섭한 것은 헤딘이 티베트로 갈 수 있도록 중국이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티베트에 있는 헤딘의 안전과 활동을 중국이 보증하는 것이었다. 교섭의 상황을 오타니의 편지에서 살펴보자.

아베씨가 大臣 那桐에게 말했다.

“나는 공식적으로 교섭할 생각이 없고 어디까지나 과학적 연구를 위해 말씀드립니다. 스벤 헤딘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하고 위대한 여행가이자 탐험가입니다. 1885년부터 투르크스탄과 중앙아시아에서 탐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탐험의 태두로 지리학자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왕도 그를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헤딘 씨의 목적은 과학적인 탐험 조사일 뿐입니다. 閣下(那桐)도 잘 알고 계시듯이, 스웨덴은 東方에 대해 정치적으로 야심도 욕망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No. 3 서간, 28~49행)

아베 일등서기관은 교섭에서 먼저 국제정치와 과학적 연구를 분리하고 티베트에서 헤딘의 탐험 조사 활동을 이해해 달라고 하였다. 헤딘의 모국인 북유럽의 작은 나라 스웨덴이 국제정치 특히 동방(중국)에 야심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헤딘의 활동을 정치와 무관한 과학 연구일 뿐이라고 두둔했다. 이렇게 헤딘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오타니와 아베의 교섭 전략이었을 것이다. 이에 아베 일등서기관은

만약 각하께서 유익한 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데 찬동하신다면 티베트 당국자에게 헤딘 박사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타전해 주십시오.(No. 3 서간, 62~67행)

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나툼은 “합의하기 매우 곤란합니다.” (No.3 서간, 79~81행)라고 즉각 대답했다. 과학적 조사 등의 대의명분은 전혀 통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보호를 다시 요청하려는 아베 일등서기관에게 나툼은 “만약 당사자(헤딘)가 티베트에 있다면 즉시 보호해서 티베트 밖

¹⁸ 아베의 암살에 대해서 다음의 논고를 참조. 栗原健, 『阿部政務局長暗殺事件と對中國(滿蒙)問題』, 同編, 『對滿蒙政策史の一面』(原書房, 1966).

으로 퇴거시켜야 할 것입니다.”(No. 3 서간, 87~89행) 라고 하였고, 이어서 “만약 당사자(헤딘)가 티베트에 있다면, 우리(중국)는 그를 티베트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No. 3 서간, 94~95행) 라고 분명히 말했다.

나통은 헤딘의 대리인 오타니와 아베가 역설한 과학적 탐험에 대해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일까.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 중국의 외교를 관장하는 외무부의 고관으로 나통은 상황, 즉 국제정치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에 대해 나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 이미 한 달 전 티베트 대신(the minister of Tibet)에게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누구도 티베트로 가는 것을 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정부[영국령 인도 정청] 역시 허가하지 않는다고 영국 공사(駐淸 英國公使)가 내게 전했습니다.(No. 3 서간, 69~76행)

나통은 헤딘이 티베트에 있다는 티베트 대신의 보고를 받고 그에 대응한 것이다. 오타니가 말한 ‘the minister of Tibet’가 청이 라싸에 파견한 駐藏大臣, 즉 駐藏辦事大臣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교섭이 이루어지기 한 달 전 주장대신은 렌위(聯豫)이다. 당시 영국 공사는 사토(Ernest M. Satow, 한자 표기는 薩道義)의 후임인 조르단(John. Newell Jordan, 한자 표기는 朱邇典)이었다.¹⁹

나통은 주장대신의 보고를 받고 청국과 영국 및 영국령 인도정청의 연계 위에 대응하였다. 영국이 티베트 행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淸)’도 이미 ‘누구도 티베트로 가는 것을 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상의 교섭 경위를 헤딘에게 설명하고 오타니는 편지 말미에,

나는 라싸에 가려던 당신의 계획이 실패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티베트 입국이 금지된 것은 영청조약에 따른 것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 4일까지 중국을 여행하던 중에 들었습니다.(No. 3 서간, 96~102행)

라고 했다. 오타니와 청국 외무부 관리 나통의 교섭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오타니는 그 원인이 티베트 입국을 금지한 ‘영청조약’에 있다고 덧붙였다. 바로 1906년 4월 27일 北京에서 조인된 ‘티베트에 관한 (英淸) 조약(中英續訂藏印條約)’이다. 그리고 이 정보를 오타니는 1906년 9월 27일부터 1907년 5월 4일까지 이어진 중국 조사여행 중에 들었다.

¹⁹ 조르단이 駐淸公使로 부임한 것은 1906년 9월 19일이다. 中国第一歷史档案館·福建師範大學歷史系, 앞의 책 (1985), p. 34 참조.

V. 헤딘, 티베트 시가체에서의 체류

오타니와 아베 일등서기관이 청국 외무부의 나통과 교섭하고 있을 때 헤딘은 티베트 어디에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을까?

교섭은 앞서 서술한 대로 1907년 4월 13일에 있었고 나통이 헤딘에 관해 이미 ‘한 달 전 티베트 대신에게 들었다’고 했으므로, 3월 13일 전후로 헤딘의 정보가 나통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헤딘의 기록인 *Trans-Himalaya*에 의하면, 그는 1907년 3월 13일 경 티베트의 시가체(日喀則)에 있었다. 시가체는 라싸 서쪽에 위치한 티베트 제2의 도시로서 타쉬룬포 절이 상징이고, 그 곳에 달라이 라마 13세 다음으로 티베트 불교 제2의 지도자인 판첸라마(타시라마)가 있었다. 시가체 남쪽에는 영국의 통상대표부가 설치되고 전신이 가능한 江孜가 있다.²⁰

시가체에 도착해 머물던 헤딘은 의외로 판첸 라마의 대접을 받았다. 1904년 영국은 달라이 라마 13세가 러시아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라싸를 무력으로 침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달라이 라마 13세를 놓쳤다. 이후 헤딘이 시가체에 머물던 1907년 4월 달라이 라마 13세는 안뎬(安多)의 쿼름 절(塔爾寺)에서 머물며 청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²¹

이러한 이유로 티베트를 어떻게든 장악하려던 영국은 달라이 라마 다음으로 높은 지위인 시가체의 판첸 라마에 접근했던 것이다.²²

헤딘은 시가체에서 강체, 라싸로 가지 못하고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먼저 당사자 헤딘의 기록을 살펴보자.

(1907년) 2월 14일, 티베트 정부 대표들은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도록 경고했다. 마치 영국, 인도 (영국령 인도), 그리고 티베트 정부의 처분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듯 2월 18일 중국정부도 등장하였다.²³

이에 따르면 티베트에 잠입하여 시가체에서 타시라마의 보호를 받고 있던 헤딘은 티베트 조사를

20 영국의 통상대표부는 1904년 ‘라싸 조약’ 제5조에 의거해 Yatun(亞東), Gyantse(江孜), Gartok(加呷托克) 등 세 개 교역 시장에 설치된 ‘the British Agent’이다. 위의 내용은 ‘西藏에 관한 [英清] 조약’(1906년)에도 유지되었다. 헤딘이 말한 ‘the British representative in Gyantse’는 오키니이다. 그리고 전신 개통에 대해서는 ‘西藏에 관한 [英清] 조약’(1906년) 제3조를 참조. 外務省条約局編, 앞의 책(1924), p. 224 · 225 · 236.

21 金子民雄, 『英露対立から英露協商期における国際政治社会』, 白須淨眞②, pp. 20-27, pp. 46-47 참조.

22 이 작전을 담당한 이가 전임 인도 총독 커즌(G.N. Curzon)의 휘하에 있던 오키니와 화이트였다. 커즌 총독 시기 판첸 라마와 인도 정부의 관계가 있었기에 헤딘이 종교도시 시가체에서 우대를 받았다. 그리고 커즌을 계승한 신인 총독 민토는 영국 정부가 티베트 정책을 변경한 것에 따르면서도 헤딘의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다. 커즌 휘하에 있던 인도 정부의 관료 일부도 그러했다. 비록 베이징 주재 영국대사 조르단이 나통에게 ‘인도 정부(영국령 인도 정부)는 누구도 티베트에 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특히 1907년 당시 티베트의 강체에 영국 대표자로 주재하던 오키니는 북서 인도의 심라에 도착한 헤딘의 우편물을 티베트 시가체의 헤딘에게 전송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青木秀男 訳, 『トランス・ヒマラヤ』上(白水社, 1979), p. 225, 316.

23 青木秀男 訳, 앞의 책(1979), p. 326; Hedin, Sven : op.cit., vol. I, p. 388.

인정하지 않았던 영국과 인도(영국령 인도)에 이어, 1907년 2월 14일 티베트 정부로부터 즉시 떠나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어서 2월 18일에는 마침내 그 앞에는 중국 정부가 등장했다.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 날(2월 18일), 강체에서 중국 정부 요원(the Chinese political agent) 가오 달로이(Gaw Daloi)²⁴의 심부름으로 젊은 중국인 두완 수엔(Duan Suen)이 나를 찾아와 아래의 간단한 편지를 건넸다.

“대영제국과 중국과의 협정. 1906년 베이징에서 서명. 제2조, 대영제국 정부는 티베트 영토를 일절 병합하지 않고 티베트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1904년 9월 7일 조약 b, 외국의 어떤 대표자 혹은 대리인도 티베트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

두완 수엔(Duan Suen)은 구두를 통해 가오 달로이(Gaw Daloi)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당신은 여권도 허가도 없이 이미 강체까지 잠입했지만 이후 어떤 상황에도 강체로 가지 말고, 찬탄(북서 티베트에서 라다크(Ladakh)로 이어지는 고원)을 통해 들어왔던 그 길로 귀국해야 한다.”²⁵

이어서 가오 달로이는

당신 정도의 인물이 과학적 연구만을 위해 2대 강국 간의 조약을 어기다니 믿을 수 없다... 당신이 어떻게든 강체로 간다고 하면, 정부의 명령에 따라 즉각 저지하고 병력을 사용해 인도 국경 밖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다.²⁶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이어서 3월 5일에야 가오 달로이는 헤딘에게

장인탕(티베트 주재 청 首席長官)과 라싸의 관리(Amban) 렌위에게 편지를 쓰시오.

in strict confidence to write to Chang Yin-t'ang(Tang Darin, or the Imperial Chinese Commissioner in Tibet), and to the Amban Lien Yu in Lhasa.²⁷

라고 했다. 여기서 가오 달로이가 헤딘에게 말한 수신인 'Chang Yin-t'ang'은 발음으로 보아

²⁴ 'Daloi'는 확실하지 않지만 官人에 대한 존칭이다. 번역을 담당한 田衛衛에 따르면 'Daloi'는 '大老爺(Daloye)'인 것으로 보이며, 헤딘이 말하는 Gaw Daloi는 高恩洪(Gao Enhong)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물에 대한 추정은 白須淨眞編③(3), pp. 53-56 참조.

²⁵ 青木秀男 訳, 앞의 책(1979), p. 326; Hedin, Sven : op.cit., vol. I , p. 388, 389.

²⁶ 青木秀男 訳, 앞의 책(1979), p. 326; Hedin, Sven : op.cit., vol. I , p. 391.

²⁷ Hedin, Sven : op.cit., vol. I , p.392..



도 6. 헤딘이 그린 장인탕. 이 스케치는 훗날 1933년 (中瑞西北科學 考查團에 있을 때) 中華民國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린 것이다.

수신인은 장인탕(張蔭棠, 1866~1937)이 분명하다²⁶. 그는 '티베트 주재의 청 황실의 수석장관'으로, 중국 황제가 티베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에 대처하기 위해 全權을 주고 라싸에 파견한 欽差大臣이다.²⁸ '進藏查辦藏事'의 권한이 주어진 흠차대신은 종종 흠차대신인 주장대신(중국 관제에서 공식 명칭은 駐藏辦事大臣) 혹은 그 차관(중국 관제에서 공식 명칭은 駐藏幫辦大臣)과 혼동되지만,²⁹ 중국 官制에 따라 이전부터 설치된 관직과는 구별된다. 장인탕이 티베트에 파견된 때는 달라이 라마 13세가 라싸를 탈출해 중국 내에서 감시를 받고 있던 시점으로, 티베트가 이레의 사태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라싸에 주장대신이 부임해 있었지만 다시 '進藏查辦藏事'의 권한을 가진 흠차대신 장인탕이 파견되었다. 그는 티베트에서 수석장관으로 인식되었고 주장대신

보다 큰 권한을 가졌다.³⁰ 『天朝籌藏錄』에 따르면, 장인탕은 영국령 인도를 거쳐 1906년 7월 티베트로 들어와 10월 13일 라싸에 도착했고 1907년 7월에 티베트를 떠났다. 따라서 1907년 3월 5일 가오 달로이가 헤딘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했을 때 장인탕은 티베트에 있었다.³¹

헤딘이 '라싸의 관리(Amban)'라고 기록한 렌위는 당시 駐藏大臣이었다. Amban은 티베트 사람들이 부르던 주장대신의 통칭이다. 렌위는 1905년 4월 駐藏幫辦大臣, 1906년 12월 5일 駐藏辦務大臣, 즉 주장대신이 되었다.³² 그는 청나라 최후의 주장대신으로 앞서 서술한 나툽의 親族이기도 하다.³³

티베트 주재 청제국의 수석장관 장인탕은 3월 15일자로 헤딘에게 편지를 보냈고, 헤딘은 이것을 중국 외교문서의 표본(a specimen of Chinese diplomatic correspondence)이라고 인식했다.

²⁸ 헤딘이 張蔭棠에 대해 'Tang Darin'이라고 부른한 근거는 알 수 없다. 이상하지만 棠(タン)大人(ダーリン)이라고 생각했거나 '張'을 'タン'이라고 발음했을 수 있다.

²⁹ 青木秀男 訳, 앞의 책(1979), p. 330에는 '駐藏弁(辦)務大臣'라고 표기하였다.

³⁰ 애초 張蔭棠은 駐藏大臣의 차관에 해당하는 駐藏幫辦大臣으로서 '進藏查辦藏事'의 권한을 가지고 티베트에 파견되었지만, 1906년 12월 9일 駐藏幫辦大臣을 사퇴한다. 그것은 駐藏大臣(駐藏辦事大臣)의 차관이라는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進藏查辦藏事'의 직무를 강력히 수행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서술한 대로 헤딘이 張蔭棠을 '티베트 주재 청 황실의 수석장관'이라고 한 것은 실태를 잘 반영한 것이다. 賀文宣, 『清朝駐藏大臣大事記』(中国藏学出版社, 1993), pp. 480-481.

³¹ 논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서 중국 자료를 조사해야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3월 5일의 티베트 체류는 확실하다. 車明懷·李學琴 編, 『天朝籌藏錄』(西藏人民出版社, 1996), p. 620, 628.

³² 賀文宣, 앞의 책(1993), p. 536.

³³ 車明懷·李學琴 編, 앞의 책(1996), p. 628. 喜饒尼瑪, 『近代藏事研究』(西藏人民出版社, 2000), p. 51.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도 7}.

친애하는 스벤 헤딘 박사!

이달 3월 5일자 편지를 받고서 귀하가 미지의 지역을 지리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시가체에 오신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지리학자로서 귀하가 티베트의 정치나 기타 사항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단지 지리 탐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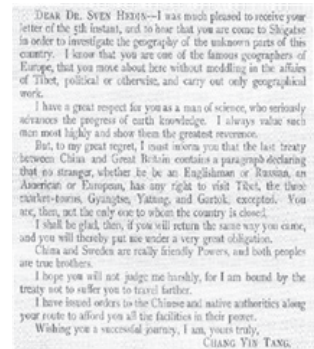
지리학 발전을 위해 애쓰는 학자로서 당신을 나는 매우 존경하며, 항상 그런 인물을 높이 평가하고 최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최근 티베트에 관한 청국과 대영제국 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영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미국인이든 혹은 유럽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외국인도 세 개 상업지역 강체, 야동 및 가얼을 제외하고 티베트의 다른 지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이렇듯 귀하만 입국이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송하지만 이전에 왔던 경로로 되돌아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국과 스웨덴은 우호국으로 양국 국민은 진정한 형제입니다. 여행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아무쪼록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조약에 따라야 합니다.

귀로와 관련해 청국인과 현지인의 관현이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귀하의 무사 귀환을 빌며, 친애하는 장인탕³⁴



도 7. 청 황실 수석장관 張蔭棠이 헤딘에게 보낸 공식문서

위 편지는 장인탕이 티베트 주재 청의 수석장관으로서, 헤딘에게 보낸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단, 당시 청나라의 공문서 서식이나 文體가 아니고 장인탕 개인의 문체도 아니다. 즉 국제정치의 외교문서 양식에 따른 것으로 본래 英文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⁵ 1905년 장인탕은 1904년에 체결된 '라싸 조약'에 대해 영국령 인도 政廳과 협의하는데 外務部 右侍郎 탕사오이(唐紹儀, 1860~1938)를 따라 캘커타에 갔고, 1906년 흡차전권대신으로서 개정을 담당한 탕사오이를 보좌해 '티베트에 대한 (英淸) 조약'을 체결시킨 인물이다.³⁶ 그리고 앞서 언급한 강체의 관리 가오언홍(高恩洪, 1875~1943)도 얼마 지나지 않아 1907년 인도와 티베트의 국경 확정 교섭에 참여하였다. 당시 청에서는 이러한 외교관이 양성되고 있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청은 충격을 받고 입헌제 시행, 전통적 관리 등용 제도인 과거를 폐지(1905)하는 등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냉엄한 국제정치의 최전선에 선 외무부 역시 귀국 유학생을 포함한 외교

³⁴ 青木秀男 訳, 앞의 책(1979), p. 334, Hedin, Sven : op.cit., vol. I, p. 397.

³⁵ 이 문서가 현존하는 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남아있다면 官職印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³⁶ 덧붙여 張蔭棠은 이미 중국의 미국 공사관 二等參贊과 샌프란시스코 영사(1898~1899)도 역임하였다. 中國第一歷史檔案館·福建師範大學歷史系, 『淸季中外使領年表』(1985), p. 84.

인재를 일시에 등용했다.³⁷

탕사오이도 장인탕도 바로 이러한 새로운 외교 인재였다.³⁸ 장인탕은 편지에서 티베트 주재의 중국 최고 관리가 '티베트에 관한 청국과 대영제국의 최근 조약' 즉 '티베트에 관한 (英淸)조약'에 따라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전했다. 이처럼 결국 헤딘은 판첸 라마의 보호 하에 있다 하더라도 되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오타니와 아베 일등서기관이 나툽과 교섭하던 1907년 4월 13일에 앞서 한 달 전에 이미 장인탕이 헤딘에게 편지를 보냈다. 헤딘은 1907년 3월 26일까지 시가체에 머물렀다. 나툽은 이러한 경위를 숙지하면서 시치미를 떼고 오타니와 아베와 교섭했다. 이미 헤딘을 퇴거시킨 뒤라서 교섭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Ⅵ. 영국·영국령 인도 정청의 오타니 고즈이의 티베트 조사 거부

외교관도 정치가도 아닌 오타니 고즈이는 '티베트에 관한 (英淸) 조약', 그리고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및 티베트에 대한 영리조약'에 의해서 영국·러시아·청 삼국이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던, 그 티베트에 외교의 장으로까지 관련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고즈이의 행동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1908년 6월 티베트 불교에서 탈출한 달라이 라마 13세가 있는 몽골을 경유하여 내륙 아시아로 향하는 조사단을 파견한 것이다. 통상 2차 오타니탐험대라고 불리는 것으로 대원은 다치바나 지이초(橋端超)와 노무라 에이자부로(野村榮三郎) 두 사람이었다. 영국의 티베트 침공으로 유동화된 티베트 정세와 몽골의 정세와의 상관관계를 알고자 한 것이다.³⁹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청나라에 의해 몽골에서 압도 지구를 거쳐 山西省 五台山으로 옮긴 달라이 라마 13세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도모하여 회담을 성사시켰다. 이것이 오대산회담이다.⁴⁰ 그리고 또한 같은 해 9월 서부 티베트 조사를 마치고 영국령 인도의 심라에 돌아온 헤딘을 유럽 모든 학계에서 초빙이 있는 가운데 도 모국인 스웨덴 귀국에 앞서서까지 일본에 불러 들였다.⁴¹ 헤딘이 요코하마에 도착한 것은 그 해

37 箱田恵子, 『外交官の誕生 近代中国の対外態勢の変容と在外公館』(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pp. 204-205, p. 209.

38 唐紹儀는 젊은 시절 콜롬비아대학을 다녔고 귀국 후 外務部 右侍郎이 되었다. 영국이 티베트를 침공한 후 '라싸 조약(1904)'에 항의하기 위해 급히 캘거타로 파견되어 영국령 인도 정청과 교섭하였다. '西藏에 관한 (英淸)조약'(1906)에 관해서는 전권으로 영국과 교섭했다.辛亥革命이 일어나자 혁명파와 교섭하고 공화제를 지향했으며 중화민국의 초대 국무총리가 된 후 격변하는 시대에 휩쓸려 비명에 죽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그의 전기가 출판되고 발자취를 밝히고 있다. 蘇苑·張曉輝, 『中華民國第一任內閣總理 唐紹儀』(珠海出版社, 2006). 그리고 唐紹儀가 孫文 廣東政府의 재정부장을 담당하던 1918년 경, 오타니 고즈이가 그를 지원하고 있었던 사실이 오타니의 편지를 통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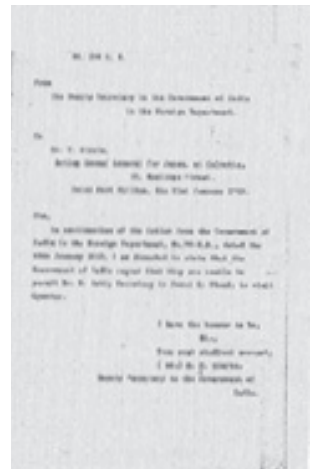
39 白須淨眞②, p. 65.

40 白須淨眞②, pp. 35-58.

41 白須淨眞 編③, pp. 85-102. 또한 敦煌學國際學術檢討會(京都大学, 2015.1.30)에서도 「1908년 스벤헤딘의 일본 방문과 신 자료」란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

11월이다. 헤딘이 영국의 저지를 뿌리치고 티베트에 잠입하고 중국에 퇴거를 요구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일련의 오타니 고즈이의 행동이 영국과 러시아, 중국 삼국의 심기를 건드려 버린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타니는 1909년 9월 선발로 보낸 조사요원 아오키 분쿄(青木文教)를 쫓아 인도로 향했고, 10월 18일 인도 봄베이에 도착하였다. 1910년 초부터 영국령 인도 정청에 오타니와 대원 아오키 분쿄, 다치바나 즈이초의 네팔과 티베트 조사를 거듭 신청하였다. 다치바나는 앞서 언급한 2차 오타니 탐험 선발대원이다. 몽골조사, 내륙 아시아 조사를 마친 다치바나는 노무라 에이자부로와 함께 카라코람 고개를 넘어 영국령 인도로南下하고 고즈이 일행과 합류한 것이다. 이 네팔과 티베트 조사는 캘커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을 통해 영국령 인도 정청에 신청한 공식적인 외교 루트였다. 그러나 영국은 매번 이를 거부하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2)『大谷探検隊研究の新たな地平』에서 영·일 외무성 외교기록을 통해 밝혔다. 여기서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의 외교기록 사진으로 대신한다⁴². 이러한 영국령 인도정청의 고즈이 일행의 네팔과 티베트 조사 거부는 캘커타 주재 총영사대리 히라타 도모오(平田知夫)를 매우 당황케 하였고, 일본의 外務大臣 고무라 주타로(小村寿太郎)에게 모두 보고할 수밖에 없는 사향이였다. 불가의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협상에 나와서도 영국령 인도 정청은 입을 다물고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히라타는 이러한 태도의 배경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⁴³ 그러나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한 영국령 인도 정청의 대응은 티베트에 대해 집요했던 고즈이에 대한 견제였음은 당연한 것이다.⁴⁴



도 8. 영국령 인도 정청이 티베트 조사를 거부하는 회답

VII. 영국·영국령 인도 정청의 오타니 탐험조사대 카라코람 고개 통과 거부

그러나 영국의 고즈이에 대한 견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네팔·티베트 조사에 대한 거듭된 영국령 인도 정청의 거부로, 고즈이는 먼저 타치바나와 노무라가 중국 新疆省의 카슈가르府의 영국 주재관 사무소에 기탁했던 발굴 자료의 회수를 포함하여 내륙 아시아 조사단을 다시 기획했다.

⁴² 상세한 내용은 白須淨眞②, pp. 92-103 참조.

⁴³ 白須淨眞②, pp. 146-147.

⁴⁴ 영국령 인도 정청은 1905년 제2회 日英同盟 제4조에 저촉된다고 보았다. 白須淨眞②, p. 132.

예정은 노무라 에이자부로 대원이 영국령 인도를 출발하여 카라코람 고개를 넘어 내륙 아시아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09년 12월 영국령 인도 정청에 카라코람 고개 통과 허가를 공식적으로 신청했으나 영국령 인도 정청은 이를 거부했다. 캘커타 주재 총영사 대리 히라타 도모오는 이 부당함에 대해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에게 보고했으나 영국령 인도 정청의 입장에는 1906년 8월 카라코람 고개로 향할 것처럼 위장했던 스벤 헤딘이 티베트에 잠입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⁴⁵ 그러한 헤딘을 지원하고 일본에까지 초청했던 고즈이의 신청이었으므로 거부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즈이는 티베트, 네팔 뿐 아니라 내륙 아시아 조사까지 영국과 영국령 인도 정청에 막혀버리게 되었다.

VIII. 오타니 고즈이의 영국에 대한 저항

네팔과 티베트 탐험·조사 활동이 거부되고, 이어서 카라코람 고개를 넘어 내륙아시아로 가는 조사대도 거부되자, 오타니는 영국으로 갔다. 그리고 세계 지리학계의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The Geographical Journal』에 '다치바나 즈이초'의 이름으로 매우 의도적으로 계획한 새로운 탐험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그는 영국령 인도 정청이 카라코람 고개 통행을 거부한 것을 비난하고, 러시아를 경유해 내륙아시아로 갈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⁴⁶

“일본의 중국령 투르키스탄과 몽골 탐험… ④ 구청(古城)과 투루판(吐魯番)에서 조직적인 발굴은 B. 아오키씨에 의해 실시될 것이다. ⑤ 한편 리더(橘)는 [하시라모토와 합류해 하미부터] 중국 漢~元代까지 간선으로 사용된 교통로를 따라 샤저우(沙州)쪽으로 향할 것이다… ⑥ [한편 하미(哈密)에서 다치바나와 합류해] 하시라모토씨는 지질과 식물 조사를 위해 투루판에서 동부 텐산(天山)까지 가고, 그 지역이 호수의 바닥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시(安西) 방면도 조사할 것이다.

Japanese Expedition to Chinese Turkestan and Mongolia…④ At Guchen and Turfan systematic excavations will be carried on by Mr. B. Aoki, ⑤ the leader meanwhile making a trip to Sachu by the route used as a highway during the Han and Yan dynasties. Returning to Hami… ⑥ From Turfan Mr. Hashiramoto will proceed to the Eastern Tian Shan with a view to geological and botanical work, afterwards examining the country towards Ansi in order to ascertain whether it once formed the bed of a lake. A special subject of inquiry will be the relation between the Lop depression, the Edsina depression, and the tract near Ansi ; and for

⁴⁵ 상세한 내용은 白須淨眞②, pp. 117-163 참조.

⁴⁶ 白須淨眞②, pp. 165-168.

this purpose he will visit both the Edsina lake and the Kara-nor west of Sachou...

*번호는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이렇듯 아오키 분쿄, 다치바나 즈이초, 하시라모토 즈이(柱本瑞俊)가 古城과 吐魯番, 沙州, 安西 방향을 집중 조사한다고 널리 알렸다. 이는 영국이 거부하는 티베트에 가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나 오타니는 계획을 그대로 실시하지 않고 다치바나만을 내륙 아시아로 파견했다. 구청(古城)과 투루판(吐魯番)으로 갈 예정이던 아오키를 외교 루트에 의한 허가를 구하지 않은 채 영국령 인도 정부의 눈을 속이고 인도에서 몰래 티베트로 보냈다. 중국에 일어난 辛亥革命(1911~1912)으로 인한 티베트의 유동화를 틈타 아오키 분쿄 뿐 아니라,⁴⁷ 타다코간(多田等觀)도 별도로 파견한 것이었다.⁴⁸

IX.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륙 아시아에서 활동한 다른 나라의 탐험 및 조사단들은 모두 마음대로 그 루트를 결정하고 활동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탐험·조사대가 반출한 역사고고 자료 또한 비록 고대 자료라 하더라도 이러한 근대 국제정치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스벤 헤딘(Sven Hedin),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 라싸(Lhasa)조약, 티베트(Tibet), 내륙아시아(Inner Asia)

투고일 2015. 2. 28 | 심사개시일 2015. 5. 7 | 게재 확정일 2015. 5. 27

⁴⁷ 白須淨眞②, pp. 169-171, pp. 177-180.

⁴⁸ 타다코간에 대해서는 高本康子, 『チベット学問僧として生きた日本人-多田等觀の生涯』(芙蓉書房出版, 2012) 참조.

Early 20th Century Inner Asian Expeditions in the Context of World History: The Cases of Sven Hedin and Ōtani Kozui

Shirasu Jōshin*

The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was the prime time for the expeditions in Inner Asia. Along the routes taken by the expeditions from Europe, America, and Japan, a great amount of new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materials were unearthed. A large part of Inner Asia, such as Eastern Turkestan and Tibet then was within the Qing dynasty's territory. Even though the Qing was in decline, the foreign expedition teams could not freely choose their expedition routes. The complex international relations ensued from the imperial powers' pursuit for expansion into Inner Asia and the Qing's effort to resist them resulted in many restrictions on entering certain regions. In previous scholarship,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is complex situation behind the Inner Asian expeditions.

This essay examines the restrictions on Sven Hedin and Ōtani Kozui's expeditions to Inner Asia based on the newly found materials that had been preserved in Diplomatic Arch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The first section of the essay discusses the conflicts between Britain, Russia, and Qing over Tibet. In 1904, the British Empire invaded Tibet and signed the Treaty of Lhasa, and succeeded in preventing Russia's exertion of power over Tibet. In 1906, in an effort to reconcile with the Qing, Britain signed the Convention between Great Britain and China Respecting Tibet. Then in 1907, Anglo-Russian Convention was concluded between Britain and Russia, both agreeing not to intervene with Tibet.

The last section looks into the restrictions that Ōtani Expedition suffered during their second and third expeditions. In 1909-1910, Ōtani requested to the British Indian Government permission to travel through Karakorum Pass and to conduct research in Nepal and Tibet, only to receive a series of rejections. Afterwards, Ōtani visited Britain and declared that his expedition team would go to Inner Asia via Russia and would not conduct research in Tibet. However, Ōtani later on changed the research plan of one of his members, Aoki Bunkyo, and ordered him to sneak into Tibet without any official authorization from the British Indian Government.

Keywords : Sven Hedin, Ōtani Kozui, Treaty of Lhasa, Tibet, Inner Asia

* Former Associate Professor, Hiroshima University

20世紀初頭の内陸アジア調査活動を 近代世界史 から読み解く

ースヴェン・ヘディンと大谷光瑞一

白須浄真

I. はじめに

世界史に言う「内陸アジア探検の時代」(19世紀後半～20世紀前半)に、内陸アジアから見いだされた歴史・考古資料の大半が、派遣された探検・調査隊のそれぞれの活動ルートに沿ったものであったことは改めて言うまでもない。しかし、対象とされた内陸アジアの大半、すなわち新疆省(東トウルキスタン)や西藏(チベット)が、まさしく力を失おうとしていた清国の領域であったとしても、異国の探検・調査隊が、思いのままにそのルートを自由に決定し活動できたとは限らない。というのは、これらの地域に勢力を扶植しようとする国々相互間の思惑や、あるいはそれを阻止したい清国の思惑が織りなす複雑な国際政治社会が、それを制約したからである。

しかし従来、探検・調査隊が搬出した歴史・考古資料が、こうした国際政治社会との相関を通して意識的に認識されたことはほとんどなかった。本発表は、日露戦争終結後から第一次世界大戦に向かう過程に実施された大谷光瑞が主宰したアジア広域調査活動(通常、「大谷探検隊」と呼称されることが多い。本発表に関係するのは、日露戦争後の第二次・第三次大谷探検隊¹とヘディンの西部チベット調査活動取りあげて、国際政治社会の制約を検討したい。

なおこうした検討を可能にしたのは、旧英国インド政庁の外交記録、大谷光瑞がヘディンに当てた書簡、2001年に初めて見いだした大谷光瑞のアジア広域調査活動に係わる日本国外務省の外交記録などの新資料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それらの成果は、次の(1)～(3)に収録した。²

(1) 白須浄真編『大谷光瑞と国際政治社会 チベット、探検隊、辛亥革命』勉誠出版、2011、375頁。7名による論考10編を収録。

(2) 白須浄真著『大谷探検隊研究の新たな地平 アジア広域調査活動と外務省外交記録』勉誠出版

¹ 大谷探検隊、すなわち大谷光瑞のアジア広域調査活動の全容の一覧は、白須著(2)、「はじめに」のx vi頁。文献略称は、〈註2を参照〉を参照。

² 引用に当たっては、白須編(1)、白須著(2)、白須編(3)のように略記する。

2012、372頁。

- (3) 白須浄真編『大谷光瑞とスヴェン・ヘディン 内陸アジア探検と国際政治社会』勉誠出版、2014、448頁。9名による論考・資料紹介18編を収録。

Ⅱ. 英露協商と 三国協商

日露戦争(1904~1905)後の国際社会の構造は、1907年の「英露協商」の成立によって、極端なまでに一挙に転換した。³ それはこの協商が英露百年余の長きにわたった対立を解消させ、英露協調の上に「英・仏・露三国協商」を導出し、「独・奥・伊三国同盟」との対峙をもたらしたことを指す図1。

しかしその「英・仏・露三国協商」が容易に成立したわけでは決してない。すでに同盟関係にあった露仏、協商関係にあった英仏に加えて英露がダイレクトに繋がるためには、高いハードルがあった。日露戦争後も英露が対立したままになっていた未解決のチベット(西藏)問題が、それである。つまりヨーロッパのバルカン問題の前にアジアのチベット問題が立ちはだかっていたのである。

1904年、英国は、日露開戦と並行してチベットに侵攻し図2、チベットと「ラサ条約」⁴を結び、当地・チベットに対する露国の影響力を排除を企てた。日本に与しただけでなく対抗不可能な戦時下の侵攻であったことは、露国の英国に対する不信をさらに増幅させてしまった。しかし英国は、露国の対日敗北(1905)とバルカン情勢への危惧を巧みに捉え、露国の対英不信の高いハードルを一挙に乗り越えようとした。英国は露国交渉に先立って、まず、英清両国関係の修復に乗り出し、チベット侵攻によって深刻対立をもたらした英清両国間の溝を埋め、北京で「西藏に関する〔英清〕条約」に調印した。⁵ 1906年4月27日のことである。そして英国は、その成果を前提とし

3 英露両国がチベット問題を解決した条約は、「英露協商」とよばれることが多い。しかしこの条約の公式名は「CONVENTION BETWEEN GREAT BRITAIN AND RUSSIA RELATING TO PERSIA, AFGHANISTAN, AND THIBET(ペルシア、アフガニスタン及びチベットに関する英露条約)」である。公式名称ではなく「英露協商」という通称が流布してしまったのは、その名称の長さもあろうが、「独・奥・伊三国同盟」との対峙する「英・仏・露三国協商」の前提として、この条約に視点を当てようとしたためである。つまり、近代ヨーロッパ史の立場から当時のアジアや世界を認識しようとする一面的なものであることは、よく承知しておくべきであろう。白須編(3)、32頁の註(4)。ただし、本報告にあつては、行論の関係上「英露協商」と記す場合もある。なお本報告に引用する諸条約は、英文、翻訳ともに、外務省条約局編「英、米、仏、露ノ各国及支那国間ノ条約」(1924)による。なおこの著におけるチベット表記は不統一(TIBET, TIBIT, THIBET)であるが、原文に従う。

4 この条約は、英国のラサ侵攻時に同地で署名された「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GREAT BRITAIN AND TIBET」、すなわち「大不列顛国政府及西藏政府間の条約」を指す。大不列顛国政府とは、英国である。なお本稿では流布している通称によって「ラサ条約(1904)」と表記する。

5 英語名は、「CONVENTION RESPECTING TIBET(TO WHICH IS ANNEXED THE CONVENTION BETWEEN UNITED KINGDOM AND TIBET, SIGNED AT LHASA, SEPTEMBER 7, 1904)」。中国では、「中英統訂蔵印条約」と表記する。また「英清北京条約」の呼称もあるが、本稿では、原則として、「西藏に関する〔英清〕条約(1906)」と表記する。「中英統訂蔵印条約」は、田涛・主編「清朝条約全集」第三巻(影印本、黒竜江人民出版社、1996)による。

て対露交渉へ臨み、露国ともにチベットには直接関与しない、つまり英・露国双方がチベットから手を引きその地を両国の緩衝地帯とすることを提案した。それは、英清両国がすでに合意した英国のチベットに対する譲歩を露国にも同様に求め、英露両国が譲歩の痛みを同等に分かち合おうとするものであった。露国はこの提案に合意し、あわせてペルシアやアフガニスタンなどにおける利害も調停し、英露間の百年を超えるわだかまりを一挙に払拭した。これが先に触れた「英露協商」と通称されることが多い「ペルシア、アフガニスタン及びチベットに関する英露条約」である。⁶ 調印は、1907年8月31日、ペテルスブルクで行われた。

したがってこの「英露協商」は、英露間のチベット問題の解決なくしては成立せず、またその成立なくしては「三国協商」も成立しなかった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は、もしチベットに齟齬が生じれば、「英露協商」はもとより「三国協商」へも波及は避けられない連動の仕組みを内在させていたことになる。チベットは、ヨーロッパ世界にとって、一見、無縁と思えるほどに遠く奥深いアジア内陸の地ではあるが、足下の危機・バルカンにも影響を与えかねない深刻な危うさを持っていたのである。英露両国がチベットにナーバスにならざるをえなかったのは、まさしくそのためだったのである。

Ⅲ. スヴェン・ヘディンのチベット潜入

かねてよりチベットのラサへの到達を目ざしていた著名な探検家スヴェン・ヘディン(瑞)は、1906年8月14日、そのチベットに清国の護照も持たないで英領インドから、しかも英国の制止を振り切って潜入した^{図3}。『英国政府は西藏の領土を併合し、又西藏の施政に干渉せざることを約した「西藏に関する〔英清〕条約」が批准されてわずかに19日後のことであった⁷。

一方、そのヘディンから、チベットで活動できる清国の護照の取得依頼を受けた日本の探検家・大谷光瑞は、北京に赴き、日本公使館の支援を受けてチベットにおけるヘディンの保護を、清国の外務部に直接働きかけた。それは二度あったが⁸、光瑞自身も加わった交渉日は、後述するように1907年4月13日と確定できる。この光瑞の北京における交渉も、英露両国が、「西藏に関する〔英清〕条約」(1906)を受けて「英露協商」の成立(1907.8.31)を謀るべくペテルブルクで交渉を進めていたまさしくその時に当たっていた。「英露協商」の〈西藏に関する協定〉の第一条は、「両締約国〔英露〕は、西藏領土保全を尊重し、その内政に対し一切干渉せざることを約」するものであった。

したがってヘディンと光瑞のこのチベットに係わる、しかも連動した直接行動は、関係各国を極めて困惑させたに相違ない。英・清がすでに合意し、今、英露間にあってもまさに合意しよう

6 全文は、前掲『英、米、仏、露ノ各国及支那国間ノ条約』338～344頁。

7 Hedin, Sven: *Trans-Himalaya*, vol. I, pp.377,409.

8 大谷光瑞が交渉する前、彼の側近の渡辺哲信が係わったものであるが、概要だけしかわからない。白須編(3)、61～63頁。

としているそのチベットを攪乱しかねない、そうした疑念を懷かせてしまった。ヘディンにも光瑞にもそのような意図はまったくなかったにせよ、二人が国際政治社会から制約を被るきっかけを作り出してしまったことは疑いない。‘英露協商’(1907)の調印に当たって、イズヴォルスキー(露国外務大臣)とニコルソン(露西亜駐劄大不列顛特命全權大使)が相互に交わした交換公文に、

本公文の日附〔1907年8月31日〕より三年間は何らの學術上の派遣員の西藏に入ることを許さざるを望ましきことと存知候……⁹

と記したのは、英露両国がチベットの學術調査を控える申し合わせであるとしても、英国の制止を振り切ったヘディンのチベット行が念頭にあってのことに相違ない。

したがって以上のように整理すれば、内陸アジアの探検調査活動への外交的制約は確実に存在した、そのように見なしてかまわない。

Ⅳ. 大谷光瑞の北京における対清国渉

ヘディンの依頼を受けた光瑞は、北京で清国政府と交渉を持った。その交渉の様相は、1907年5月19日付の光瑞のヘディン宛書簡¹⁰に、次のように書き出されている。

不運にも私の旅は非常に長くなってしまい、4月になってようやく中国の首都・北京に到着いたしました。当地では阿部公使を通じて清国外務部の大臣(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China)のNatan〔那桐、図4〕と交渉を行いました。阿部氏は、北京公使館の一等書記官(First secretary to Japanese Legatory)であり、あなたさまの著作のすべてに目を通し、あなたさまのことを現代における偉大な科学的探検家として尊敬されておられます。〈白須編(3)、246頁、No.3書簡の14~26行、図5。以下同〉

『鏡如上人年譜』(1954)、すなわち大谷光瑞の年譜によれば、光瑞は、1906(明治39)年9月26日、清国調査に出発、広く各地を訪ねた後に北京に向かった。¹¹ 北京到着は、1907(明治40)年4月11日、北京出立は4月22日である。¹² この間、光瑞は、16日に、清国の皇族で実力者であった慕親王(愛新

9 前掲『英、米、仏、露ノ各国及支那国間ノ条約』340~341頁。

10 現在確認している大谷光瑞のヘディン宛て書簡は、電報も含めて8通である。白須編(3)、238~257頁。

11 1906(明治39)年9月27日、神戸を発って後、上海、杭州、漢口、鄭州、西安、成都、重慶、巴東、宜昌、沙市、漢口、上海、香港、広東、香港、上海、漢口、河南、北京、長城、山海関、營口、奉天、大連、旅順、大連を巡ったものである。帰国は、1907年5月4日である。

12 『北京特信』『教海一瀾』342号25~27頁などが、年譜の根拠である。『教海一瀾』とは、大谷光瑞が門主であった当時の西本願寺教団の情報誌である。

覚羅溥偉、1880～1936)と肅親王(愛新覺羅前耆、1866～1922)の来訪を受け¹³、17日には西太后と光緒帝に謁見したように精力的に清国の要人と交流した。本稿に係わって特に注目すべきは、その4月13日の記録である。

十三日、瞿鴻城那桐の両大臣を訪ひ、繡額二種を贈らる。

これが光瑞のヘディン宛書簡に見える‘阿部公使を通じて清国外務部の大臣のNatan〔那桐〕と交渉を行’ったことと対応する。那桐(1857～1925) 図4 とは、当時の清国の高官の一人である。

この光瑞と那桐との会談は、近年公にされた『那桐日記』(北京；新華出版社、2006)の光緒33年3月の項に、

初一日、早進内、外務部値日。十点、日本大谷伯爵光瑞来拝。

と、那桐の日直の日、光瑞が、10時に外務部に彼を訪ねたという記載を見出した。清暦の光緒33年3月の「初一日」は、まさしく1907(明治40)年4月13日に当たる。『那桐日記』は簡略で、阿部の光瑞への同行を記さないが、記載の一致は、光瑞の那桐訪問が事実であったことを物語る。那桐にとっての主賓は、間違いなく光瑞であった。

なお当時の那桐のポストは、外務部会辦大臣であったから、光瑞が言うように‘清国外務部の大臣(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China)’と見てかまわない。¹⁴

ただし、『鏡如上人年譜』に光瑞が那桐とともに訪ねたと伝える「瞿鴻城」という人物は、当時の清国の官界には見出せない。‘瞿鴻城’は、著名な「瞿萊禪」の誤りで、1901年7月24日(清暦の光緒27年6月9日)より外務部尚書、会辦大臣の任にあった人である。1907(明治40)年4月13日当時は、軍機大臣にもなっていたはずである。¹⁵ 那桐と並行するようなその高い地位(『鏡如上人年譜』の言う‘両大臣’)から推して、交渉に同席したのかも知れない。¹⁶

さて、問題とする4月13日の交渉は、ヘディンの著作のすべてに目を通し彼を尊敬しているという在清国北京日本公使館の一等書記官・阿部守太郎を通じて始まったようである。阿部は、白須編(1)、白須著(2)に引用した外務省外交記録にしばしば登場する外務省政務局長・阿部守太郎と

13 慕斐王と会っているが、初代慕親王奕訢はすでに1898年に他界しているから、この慕親王は、第2代慕親王溥偉のはずである。北京大学の田衛衛氏の教示である。記して感謝する。

14 なお光瑞は、この会談後の4月19日(清暦3月初7日)、那桐の晩餐会に招かれている。『那桐日記』の当日に、「晩約日本大谷伯爵昆玉及林使等七人小酌」(579頁)と見える。「昆玉」とは、兄弟に対する尊称であるから、光瑞の清国巡遊の随行長であった弟の大谷尊由を指す。「林使」とは、林権助在清特命全權公使である。

15 中国第一歴史档案館・福建師範大学歴史系『清季中外使領年表』中華書局、1985、222頁。なお、『清史稿』巻437に列伝がある。

16 これは根拠のない推察ではない。日本公使との会談に、瞿鴻禪が出席していたことは、『那桐日記』にも見えている。595～597頁。

同一人物である¹⁷。彼は、外務本省に戻って後、政務局長となっていた。しかし不幸にも、1913(大正2)年9月5日、東京赤坂の霊南坂で対中国強硬論者によって暗殺された。¹⁸ 42才であった。

ところで、ヘディンが光瑞に書簡を出し清国との交渉を依頼したのは、先に述べたように彼がチベット調査を拒否されて苦悶していた時、つまり英領インドのシムラにいた頃である。これは、阿部一等書記官が、那桐に対して、

大谷伯は、ヘディンがインドを出発する前に彼から手紙を受け取りました。(No.3書簡の50~52行)

と語っていたことから裏付けられる。しかし清国とこの交渉が持たれた時、ヘディンは、本国の意向に沿いつつもヘディンを理解したインド総督ミントーの計らいによって、すでにチベットへ潜入していた。したがって光瑞・阿部の二人が、那桐と会った1907(明治40)年4月13日は、ヘディンがチベットに入るための護照の発給を求める交渉ではなく、すでにチベットに入っているヘディンの安全とその活動を保証するために、清国の護照を求めたのが現実であろう。その交渉の様相を、光瑞の書簡によって追ってみよう。

阿部氏は大臣(那桐)に言いました。

“私は、公式に交渉するつもりはなく、あくまで科学的研究の目的のために交渉するのです。スヴェン・ヘディン博士は、世界中で最も著名にして偉大な旅行者であり探検家であります。トルキスタンと中央アジアにおける氏の探検旅行は、1885年から続けられており、地理学者から探検界の泰斗として仰がれているだけではなく、スウェーデン国王までも氏を大変に賞賛されております。……氏の目的は科学的な探検調査以外にはありません。閣下(那桐)もよくご承知のように、スウェーデンは、東方にあって政治的意味合いでのいかなる野心も欲望もまったく抱いておりません。”(No.3書簡の28~49行)

阿部一等書記官が交渉に当たって切り出しているのは、国際政治社会という場から科学的研究を切り離し、ヘディンのチベットにおける探検調査活動に理解を示して欲しいということに尽きるであろう。阿部は、ヘディンの母国・北欧の小国スウェーデンの国際政治社会における野心のなさ、取り分けて東方(清国)に対するそれを強調することによって、科学研究という非政治性に徹

17 白須編(1)の索引、白須著(2)の人名索引参照。阿部守太郎が、一等書記官として清国公使館に在勤を命じられたのは、1905(明治38)年6月である。明治期外交資料研究会編『外務省制度・組織・人事関係調書集、第4巻 外務省年鑑 明治四三、四四年版』クレス出版、1995、112頁。なお光瑞のヘディン宛書簡は、冒頭のこの箇所では阿部を「公使」と記している。これは、光瑞がこの書簡を書いた1908年5月19日当日は、阿部が一等書記官のままで臨時代理公使(実質上の公使)となっていた(1908年5月15日付)から、光瑞は、冒頭で阿部を公使とし、交渉時の4月13日のことは、一等書記官として記したのである。したがって誤りではなく正確な表現である。

18 阿部の暗殺については、次の論考を参照。栗原健「阿部政務局長暗殺事件と対中国(満蒙)問題」同編『対満蒙政策史の一面』原書房、1966年。

しているのだとフォローを試みたのである。この点を強調することが、ヘディンへの理解を求めようとする阿部と光瑞の交渉戦略と見てよい。だからこそ阿部一等書記官は、

もし閣下がこの有益なる科学研究を支援することにご賛同頂けますならば、チベット（西藏）当局者に、ヘディン博士のチベットにおける活動を支援するように打電して下さいますか。(No.3書簡の62～67行)

と申し入れたのである。しかし那桐は、

合意を得ることは極めて困難であります。(No.3書簡の79～81行)

と端的に回答したように、科学的調査などという大義名分はまったく通用もしなかった。それでも保護を求めて食い下がろうとする阿部一等書記官に対し、那桐は次のように繰り返した。

もし当事者(ヘディン)がチベット域内にいるのであれば、ただちに、しかるべき保護のもとに域外へ退去させられるべきでしょう。(No.3書簡の87～89行)

とまた続いて、

もし当事者(ヘディン)がチベット域内にいるのであれば、我々(清国)は、チベットにい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No.3書簡の94～95行)

とはっきりと言い切ったのである。

それでは、那桐は、ヘディンの代理人たち、すなわち光瑞と阿部が力説した科学的探検を無価値と見ていたのであろうか。しかしそう断言するのは、早計である。那桐は、清国の外交を司る官署・外務部の高官として、場の違いを言ったに過ぎないのである。その場とは、国際政治社会である。それを那桐に聞いてみよう。

この事案については、すでに一ヶ月前、チベット大臣（the minister of Tibet）から聞き及んでおります。しかし目下のところ我々は、いかなる人物であってもチベットに入ることは禁止するという決定を下しました。インド政府(英国インド政庁)はいかなる人物も当地に入ることを許可していないことを、英国公使(駐清英国公使)は、私に伝えています。(No.3書簡の69～76行)

と、つまり那桐は、チベット大臣からヘディンがすでにチベットにいるとの報告を受けた上で対応していたのである。光瑞の記した 'the minister of Tibet' が、清国がラサに派遣していた駐蔵大臣、すなわち駐蔵辦事大臣の英訳と見れば、交渉日1907年4月13日の「一ヶ月前」の駐蔵大臣

は、聯豫であったことになる。また英国公使とは、アーネスト・サトウ(Ernest M. Satow。漢字表記は、薩道義)の後任のジョーダン(John. Newell Jordan。漢字表記は、朱邇典)である。¹⁹ したがって那桐は、ラサの駐蔵大臣の報告と清国と英国-英国インド政庁との連携の上に対応をしていたのである。そればかりではない。英国がチベット行を禁止しているだけではなく、「我々(清国)」も、すでに「いかなる人物であってもチベットに入ることは禁止するという決定を下し」ていると言ったのである。

さてこうした交渉の経緯をヘディンに説明した光瑞は、この書簡を、

私は、あなた様のラサ到達の計画が失敗に終わってしまったことを大変に遺憾に思います。チベットに入ることの禁止は、英清条約によるもので、私は、昨年9月から5月4日までの中国旅行中に聞きました。(No.3書簡の96~102行)

と結ばざるを得なかった。光瑞の清国外務部の那桐との交渉は、とりつく島さえもないままに失敗に終わったのである。そしてその要因を、光瑞は、チベットに入ることを禁止した「英清条約」にあるのだと付け加えた。これが、1906(明治39)年4月27日北京で調印された「西藏に関する〔英清〕条約(中英統訂蔵印条約)」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光瑞は、その情報を1906(明治39)年9月27日から1907(明治40)年5月4日の中国調査旅行中に聞いたという。先に触れた彼の中国旅行である。

V. チベットのシガツェにおけるヘディン

さて、光瑞と阿部一等書記官が清国外務部の那桐と交渉していたころ、ヘディンはチベットのどこにいてどのような状態におかれていたのであろうか。

交渉推定日は、先に述べたように1907(明治40)年4月13日であった。那桐はこの時、ヘディンのことは「すでに一ヶ月前、チベット大臣から聞き及んだ」と言っているから、那桐の耳にヘディンの情報が入ったのは、3月13日前後となろう。

ヘディンのこの時の記録『トランス・ヒマラヤ』によれば、彼は、1907年3月13日前後は、チベットのシガツェ(日喀則)にいた。シガツェは、ラサ西方のチベット第二の町で、タシルンポ寺がその町の象徴であった。そのお寺には、ダライラマ13世に次ぐチベット仏教の第二の指導者パンチェンラマ(タシラマ)がいた。そしてそのシガツェの南には、英国の通商代表部が設置され、電信も通じるギャンツェ(江孜)があった。²⁰

シガツェに到達し当地に居留していたヘディンは、意外にも、パンチェンラマから厚遇を受け

¹⁹ 駐清公使としての着任は、1906年9月19日。前掲『清季中外使領年表』、34頁。

²⁰ 英国の通商代表部とは、「西藏に関する〔英清〕条約」(1906年)において無効とならなかった1904年の「ラサ条約」の第五条に見えるYatun(亜東)、Gyantse(江孜)、Gartok(加托克)の三つの交易市場に置かれた'the British Agent'の一つである。ヘディンの言うように'the British representative in Gyantse'は、オコナーであった。また電信が通じてい

た。パンチェンラマは、1905年に英領インドに招聘されたことがよく物語るように、英国が抱き込もうとしたチベット仏教世界の指導者の一人であった。1904年、英国は、ダライラマ13世の露国への接近を阻止するためラサに武力侵攻したが、その要となる13世を取り逃がしてしまった。ヘディンがシガツェに滞在していた1907(明治40)年4月当時は、13世は、アムドのクンブム寺にあって清国の監視下にあった。²¹したがって、武力侵攻したチベットをなんとか掌握したいと願う英国は、取り逃がした13世に次ぐステイタスを持つシガツェのパンチェンラマに接近したのである。²²

とはいえヘディンは、このシガツェからギャンツェ、そしてラサへと進むことはできず、引き返さざるを得なかった。先ず、当事者ヘディンの生の声を聞いてみよう。

〔1907年〕2月14日、チベット政府の代表者たち(the representative of the Tibetan Government)から一刻も早くここを去るように警告を受けた。あたかも英国、インド〔英領インド〕、そしてチベット政府(Tibetan Governments)の仕打ちを受けただけでは十分でないかのように、2月18日、清国政府(The Chinese Government)もまた、その舞台に現れたのである。²³

これによれば、やっとチベットに潜入し、幸いにもシガツェでタシラマの保護を受けていたヘディンは、チベット調査を認めなかった英国とインド〔英領インド〕に続いて、1907年の2月14日、すぐに立ち去れというチベット政府の警告を受け、次いで2月18日には、とうとう彼の前に清国政府が登場したというのである。その様子は、

この日(2月18日)、ギャンツェの清国政府の代理人(the Chinese political agent)・ガオダロイ(Gaw Daloi)²⁴の使者として若いシナ人ドウアンズエン(Duan Suen)が私を訪ね、次のような簡単な手紙を渡した。

ることは、‘西藏に関する〔英清〕条約’(1906年)の第三条を参照。前掲外務省条約局編『英、米、仏、露ノ各国及支那国間ノ条約』224、225、236頁。Hedin, Sven : op.cit. vol. I, p.389.

²¹ 金子民雄「英露対立から英露協定期における国際政治社会」白須編(2)、20～27頁。白須著(2)、46～47頁参照。

²² その工作の中心となったのは、前任インド総督カーゾンの下にあってチベット工作を担当していたオコナーとホワイトであった。ヘディンがチベットのシガツェという宗教都市で厚遇を受けたのは、カーゾン総督時代におけるパンチェンラマとインド政庁との関係が無視しては理解できない。カーゾンを継承した新総督ミントーも、チベット政策を変更した英国政府の意向には従いつつもヘディンには一定の理解を示していたように、かつてカーゾンの下にあったインド政庁の一部の官僚たちも、同様にヘディンに対処していた。取り分けて、1907年当時、チベットのギャンツェに英国代表者として駐在していたオコナーは、北西インドのシムラへ届くヘディン宛の郵便物を、チベットのシガツェにいるヘディンのもとへわざわざ転送し、実質的な支援を惜しまなかった(青木秀男訳『トランス・ヒマラヤ』上、1979、225、316頁)。たとえば北京駐在の英国大使ジョーダンが、‘インド政府(英国インド政庁)は、いかなる人物も当地に入ることを許可していない’と那桐に伝えていたとしても。

²³ 前掲青木訳『トランス・ヒマラヤ』上、326頁。Hedin, Sven : op.cit. vol. I, p.388.

²⁴ この‘ダロイ’という語は、よくわからない。人名ではなく官人の尊称であろう‘ガオ’は‘高’の音訳であろう。先に触れた北京大学の田氏によれば‘ダロイ’は、‘太老爺(Daloye)’のことかも知れないという。なおヘディンの言うガオダロイ(Gaw Daloi)が、高恩洪(Gao Enhong)という人物に比定できことは、白須編(3)、53～56頁。

大英帝国とシナとの協定。1906年北京において署名。第2条、大英帝国政府は、チベット領土のいかなる部分も併合しないこと、およびチベットの内政に干渉しないことを義務とする。

1904年9月7日の条約、外国のいかなる代表者もしくは代理人も、チベット入国の許可をえることができない。

ドゥアンスエンは、以上の他、口頭で次のようなガオダロイの意を伝えた。

あなたは、旅券も、許可もなしに、すでにギャンツェまで潜入したのだが、今後いかなる条件の下にもギャンツェに進むことなく、帰り道は、チャンタン(北西チベットからラダックへと広がる高原)を通ってきたと同じ道を後戻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²⁵

と、見えている。そしてさらにガオダロイ(Gaw Daloi)は、

単なる科学的研究のために、あなたともあろうお方が二大強国間の条約を破るとは信じられない。……あなたがどうしてもギャンツェへ行くとおっしゃるのであれば、政府の命令によって直ちに阻止し、兵力を持って印度との国境の外にでていただ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²⁶

と、手紙を送ってきたというのである。

そして、3月5日になって、このガオダロイ(Gaw Daloi)が、ヘディンに対し、

in strict confidence to write to Chang Yin-t'ang(Tang Darin, or the Imperial Chinese Commisioner in Tibet), and to the Amban Lien Yu in Lhasa.²⁷

チャンインタン(タンダーリン、チベットにおける清帝国の首席長官)と、ラサのアンバンのリエンユに直接手紙を出すように。

と求めたのである。そこで次に、そのガオダロイが、ヘディンに直接手紙を出すようにと言った‘チャンインタン’について、検討してみよう。チャンインタン(Chang Yin-t'ang)は、その音の整合性から張蔭棠²⁸ 6であることは疑いない。そしてその彼は、‘チベットにおける清帝国の首席長官’とされているのであるから、清国皇帝がチベットの諸事に対処するため全権を与えてラサに特派した欽差大臣・張蔭棠であることは疑いない。²⁸ ‘進蔵査辦蔵事’を付与された欽差大臣・張蔭棠を、同じ欽差大臣の駐蔵大臣(清国官制上の公式名称は、駐蔵辦事大臣)やその次官(清国官制上の公式名称は、駐蔵幫辦大臣)と混同してしまいやすいが²⁹、清国官制上に位置付けられたこれら

25 青木訳『トランス・ヒマラヤ』上、326頁。Hedin, Sven : op.cit.vol. I ,pp.388, 389.

26 前掲青木訳『トランス・ヒマラヤ』上、329頁。Hedin, Sven : op.cit.vol. I ,p.391.

27 Hedin, Sven : op.cit.vol. I ,p.392.

28 ただしヘディンが、彼を「Tang Darin(タンダーリン)」と補足するのは奇妙である。棠(タン)大人(ダーリン)という漢語を写したものであろうか。よく分からない。

29 青木前掲訳『トランス・ヒマラヤ』上、330頁は、「駐蔵弁(辨)務大臣」としている。

従前からの官職とは区別しなくてはならない。張蔭棠がチベットに派遣されていた時は、ラサを脱出したダライラマ13世は、清国の域内でその監視下におかれていた。つまりチベットの異例の事態下であった。したがって「進蔵査辦蔵事」を帯び、首席長官とチベットで認識されていた欽差大臣の張蔭棠は、駐蔵大臣がラサに赴任しているにも係わらず重ねて派遣されたもので、しかも駐蔵大臣を上回る権限を持っていたと理解すべきであろう。³⁰ その張蔭棠は、『天朝籌蔵録』に従えば、英領インドを経由して1906年7月にチベットに入り、10月13日、ラサに到達、1907年7月にチベットを離れたという。したがって、1907年3月5日、ガオダロイが、ヘディンに対し、「チャンインタンと、ラサのアンバンのリエンユに直接手紙を出すように」求めた時、彼がチベットにいたことは疑いない。³¹

なお当時の駐蔵大臣は、ヘディンが、「ラサのアンバン」と記していたリエンユで、漢字表記の聯豫である。アンバンとは、チベットの人々が通称した駐蔵大臣の呼び方である。聯豫は、1905年4月、駐蔵幫辦大臣となり、1906年12月5日、駐蔵辦務大臣すなわち駐蔵大臣となった。³² 清国最後の駐蔵大臣であり、先に触れた那桐の親族だという。³³

さてそのチベットにおける清帝国の首席長官・チャンインタンは、次の3月15日付書簡をヘディンに送ってきた。ヘディンは、これを中国の外交文書の標本(a specimen of Chinese diplomatic correspondence)と認識しているので、原文は挿図 図7で示し、訳文も提示しておこう。

親愛なるスウェン・ヘディン博士！

本月五日付け貴簡を拝受し、貴下が当国で未知の地域を地理学的に探求なさるために、シガツェにご来着になりました旨を伺い、ご同慶に堪えません。貴下が、ヨーロッパにおける有名な地理学者のひとりとして、何らチベットの政治や、その他の事項に介入することなく、ひたすら地理探求のために、お出になったことは、よく存じ上げています。

地理学発展のために、真剣なる学者たる貴下にたいし、わたくしは大いなる尊敬を惜しまぬ者であります。常に、かかる人物を高く評価し、最大の敬意を表してきましたもの。

ところがイギリス人であれ、ロシア人であれ、あるいはアメリカ人もしくは他のヨーロッパ人であれ、いかなる外国人も、三商業地、ギャンツェ、ヤートンおよびガルトクを除く他のチベットの土地に立ち入る権利を有さないことが、チベットに関するシナ大英帝国間の最近の条約にはっきり規定さ

³⁰ 当初、張蔭棠は、旧来の清国官制である駐蔵大臣の次官、すなわち「駐蔵幫辦大臣」に、「進蔵査辦蔵事」を加えてチベットに派遣されたが、1906年12月9日、その「駐蔵幫辦大臣」を辞退している。「進蔵査辦蔵事」という職務によって、駐蔵大臣(駐蔵辦事大臣)の次官という立場に制約されずにその職務を強力に遂行しようとしたのであろう。したがって、本文に述べるように、ヘディンが彼を「チベットにおける清帝国の首席長官」とみていたのは、その実態をよく示していることになる。賀前掲書『清朝駐蔵大臣大事記』、480～481頁。

³¹ 論著によって多少の誤差があり、これも清国の資料を調査しなければ分からないが、今問題とする3月15日に不都合なものはない。車明懷・李学琴編著『天朝籌蔵録』西藏人民出版社、1996、620、628頁。前掲『天朝籌蔵録』、620、628頁。

³² 賀文宣『清朝駐蔵大臣大事記』中国蔵学出版社、1993、536頁。

³³ 前掲『天朝籌蔵録』、628頁。喜饒尼瑪『近代蔵事研究』西藏人民出版社、2000、51頁。

れたと申し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まことに遺憾に存じます。かように、ご入国をお断りするのは、貴下おひとりに限るものでないことは勿論です。

したがいまして、恐縮に存じますが、往路と同じ道をお引きかえし下さるならば、このうえなくありがたく存じます。

シナとスウェーデンとは、事実、友好国で、両国民は真に兄弟です。

ご旅行の継続を、お止めしたことにつきましては、なにとぞ誤解なさないで下さい。条約によって、私たちは縛られているのです。

ご帰路におきましては、シナ人および土着民の官憲が、能う限りのご便宜をおはかりするよう、わたしは既に発令致しました。

貴下のご多幸なご帰還を祈りつつ、

貴下の真実なる

チャンインタン³⁴

これは、張蔭棠(チャンインタン)が、チベットにおける清帝国の首席長官として公式にヘディンに発した公文書と見なしてよい。ただし当時の清国の公文書の書式でも文体でもなく、また張蔭棠の個性から出た文体でもない。つまり当時の国際政治社会における外交文書の様式を取得したもので、もとより英文であったと推察する。³⁵ 張蔭棠(1866~1937)は、1905年、前年の‘ラサ条約’(1904)について英国インド政庁と協議するため、外務部右侍郎唐紹儀(1860~1938)に侍してカルカッタに行き、さらに、1906年、欽差全権大臣としての改定に臨んだ唐紹儀を補佐して‘西藏に関する[英清]条約’(1906)を締結させた人でもある。³⁶ また先に触れたギャンツェの西藏官憲・ガオダロイ、すなわち高恩洪(Gao Enhong, 1875~1943)も、まもなくインドとチベットの国境画定交渉(1907)に加わることになる。当時の清国には、こうした主張を展開する外交官がすでに育っていたのである。日露戦争における日本の勝利の衝撃は、立憲制への施行、伝統的官吏登用制度であった科挙の廃止(1905)に端的に現れたように清国の政治制度の根元的改変を促したが、厳しい国際政治社会の矢面に立つ外務部にあって、帰国留学生を含む外交人材の登用が一挙に進展していたことは近年の研究が示すところである。³⁷ 唐紹儀も、張蔭棠もまさしくそうした新外交人材であった。³⁸

34 前掲青木訳『トランス・ヒマラヤ』上、334頁。Hedin, Sven : op.cit.vol. I , p.397

35 この文書が残っているか否か現在は未確認である。もし残っていれば、官職印などの確認が必要となろう。

36 加えてこの時すでに、清国のアメリカ公使館の二等参贊、駐旧金山(サンフランシスコ)領事(1898~1899)も経験していた。前掲『清季中外使領年表』、84頁。

37 箱田恵子『外交官の誕生 近代中国の対外態勢の変容と在外公館』名古屋大学出版会、2012、204~205、209頁。

38 唐は、若くしてコロンビア大学で学び、帰国後、外務部右侍郎となった。英国のチベット侵攻後、‘ラサ条約’(1904)に抗議するため急遽カルカッタに派遣され、英国インド政庁と交渉した。また1907年の‘西藏に関する[英清]条約’(1906)においては全権として英国と交渉した。辛亥革命の勃発とともに革命派との交渉に参加したが、共和制を志向し、中華民国の成立とともに初代中華民国國務総理となった。その後も、激変する時代のなかで翻弄され非業の死を遂げることになる。今中国では、彼の伝記も出版され、その足跡に焦点が当てられようとしている。

さて張蔭棠のこの書簡は、在チベットの清国の最高官が、‘西藏に関するシナ大英帝国間の最近の条約’、つまり‘西藏に関する〔英清〕条約(1906)’にはっきり規定されたと公式に伝えたのであるから、たとえタシラマの保護下にあったとはいえ、ヘディンを引き返す以外には方法はなかったのである。

光瑞が阿部一等書記官とともに那桐と交渉した1907(明治40)年4月13日のすでに一ヶ月前には、張蔭棠はこのヘディン宛て書簡を書いていた。ヘディンがシガツェの最後の日を過ごしたのは、1907(明治40)年3月26日であるから、那桐はこうした経緯を熟知した上で、なに食わぬ顔で光瑞と阿部と交渉していたことになる。この交渉が、すでにヘディンを退去させてしまった‘後の祭り’であることすらも知らせなかったことになる。

VI. 英国・英国インド政庁による大谷光瑞のチベット調査の拒否

外交官でも政治家でもない大谷光瑞は、‘西藏に関する〔英清〕条約’、そしてが‘ペルシア、アフガニスタン及びチベットに関する英露条約’によって英露清三国が干渉を排除しようとしたそのチベットに、外交の場にまで出向いて係わってしまった。しかし光瑞の行動は、それで終わったわけではなかった。翌1908年6月、チベット仏教徒が多くしかも脱出したダライラマ13世が居留していたそのモンゴルを経由して内陸アジアに向かう調査隊を派遣したのである。通常、第二次大谷探検隊と呼称されるもので、隊員は、橘瑞超と野村栄三郎の二人であった。英国のチベット侵攻によって一挙に流動化したチベット情勢とモンゴル情勢のとの相関を知ろうとしたのであろう。³⁹そしてさらに同年8月には、清国によってモンゴルからアムドを経て山西省の五台山に移されたダライラマ13世との直接接触を企て、会談を成功させてしまった。五台山会談である。⁴⁰そしてまたさらに、同年9月、西部チベットの調査を終えて英領インドのシムラに戻ったヘディンを、ヨーロッパの諸学界からの招聘があるなかで、また母国スウェーデンへの帰国に先立ってまで日本に呼び寄せたのである。⁴¹ヘディンが横浜に着いたのは、同年11月のことである。ヘディンが、英国の阻止を振り切ってチベットに潜入し、清国に退去を求められたことは先に述べたとおりである。こうした一連の大谷光瑞の行動が、英・露・清三国の心証を逆なでしてしまったことは、容易に想定できよう。

しかし光瑞は、1909年9月、先発させていた調査隊員・青木文教らを追ってインドに向かっ

蘇苑、張曉輝『中華民国第一任内閣総理 唐紹儀』珠海出版社、2006。なお唐が孫文広東政府の財務部長であった1918年前後、大谷光瑞が彼を支援していたことを窺わせる光瑞の書簡が残っている。

³⁹ 白須著(2)、65頁。

⁴⁰ 白須著(2)、35～58頁。

⁴¹ 白須編(3)、89～102頁。なお『敦煌学国際學術検討会』(2015.1.30、於京大)においても、『1908(明治41)年のスヴェン・ヘディンの来日とその新資料』と題して、口頭発表を行った。

た。孟買(ボンベイ)への到着は、10月18日である。そしてカシミールの調査を終えた光瑞は、1910年早々から、英国インド政庁に、光瑞及び青木文教、橘瑞超らのネパールとチベット調査を重ねて申請した。橘瑞超は、先に触れた第二次大谷探検隊員の橘である。モンゴル調査、そして内陸アジア調査を終えた橘は、野村とともにカラコルム峠を越えて英領インドに南下し、光瑞らと合流していたのである。このネパールとチベット調査は、在カルカッタ日本総領事館を通して英国インド政庁に申請したもの、つまり公的な外交ルートによるものであった。しかし英国インド政庁は、その申請をことごとく拒否したのである。その詳細は、日英の外交記録を対比しながら詳細に提示したところであるからここでは繰り返さず、その外交記録の一例を挿図として提示するに留めたい図 8。⁴²

この英国インド政庁による光瑞らのネパールとチベット調査の拒否は、在カルカッタ総領事代理平田知夫を極めて困惑させ、本国の外務大臣・小村寿太郎に逐一報告せざるをえないほどのものであった。不許可の理由を一切提示しないだけでなく、再交渉に及んでも英国インド政庁はすべてに口をつぐんで回答を拒否したからである。平田はこうした態度の背景を十二分には読み切れなかったようである。⁴³ しかし嫌がらせに終始する英国インド政庁の態度が、チベットに執拗に係わろうとする光瑞への牽制であったことは、言うまでもなからう。⁴⁴

VII. 英国・英国インド政庁による大谷光瑞の探検・調査隊のカラコルム峠の通過拒否

しかし英国の光瑞に対する牽制は、それに留まらなかった。たび重ねて英国インド政庁からチベット、ネパール調査を拒否された光瑞は、先に橘と野村(第二次大谷探検隊員)が清国新疆省のカシュガル府英国駐在官の事務所に寄託していた発掘資料の回収を含めて、再度、内陸アジア調査隊を企画した。予定した隊員は野村栄三郎、英領インドを出発地とし、カラコルム峠を越えて内陸アジアに向かうものであった。そして1909年12月、英国インド政庁に、先にインドへと南下する際に越えたカラコルム峠の再通過を申請した。しかしインド政庁は、それさえも拒否した。在カルカッタ総領事代理平田知夫は、その理不尽さを外務大臣小村に報告したが、英国インド政庁にしてみれば、1906年8月、カラコルム峠に向かうと見せかけたヘディンにチベットへ潜入されてしまった苦い経験を持っている。⁴⁵ そのヘディンを支援し、日本にまで招聘した光瑞からの申請である。拒否には無理からぬ事情もあった。こうして光瑞は、チベット、ネパールだけではなく内陸アジアの調査まで英国と英国インド政庁に塞がれてしまう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42 詳細は、白須著(2)、92～103頁。

43 白須著(2)、146～147頁。

44 英国インド政庁は、1905年に継続した第二回日英同盟の第4条への抵触と見なしたのであろう。白須著(2)、132頁。

45 詳細は、白須著(2)、117～163頁。

VIII. 大谷光瑞の英国への抵抗

英領インドからのネパール、チベットの探検・調査活動を拒否され、加えてカラコルム峠を越えて内陸アジアに入る探検調査隊までも拒否された光瑞は、橘瑞超を連れて英国に向かった。そして英国において当時名実ともに世界の地理学界において頂点に立つ学術誌“The Geographical Journal”に橘の名で投稿し、極めて意図的に熟考した新探検計画を発表した。それは英国インド政庁のカラコルム峠の通行拒否を非難した上で、ロシア経由で内陸アジアに向かうことを宣言し、次のように述べた。⁴⁶

Japanese Expedition to Chinese Turkestan and Mongolia, ……④At Guchen and Turfan systematic excavations will be carried on by Mr. B. Aoki, ⑤the leader meanwhile making a trip to Sachu by the route used as a highway during the Han and Yan dynasties. Returning to Hami, ……⑥From Turfan Mr. Hashiramoto will proceed to the Eastern Tian Shan with a view to geological and botanical work, afterwards examining the country towards Ansi in order to ascertain whether it once formed the bed of a lake. A special subject of inquiry will be the relation between the Lop depression, the Edsina depression, and the tract near Ansi ; and for this purpose he will visit both the Edsina lake and the Kara-nor west of Sachou, …… [番号は、便宜上、著者が付したもの]

「日本の中国領トウルキスタンとモンゴリアへの探検」……④グチェン[古城]とトゥルファン[吐魯番]における組織的な発掘は、B. 青木[青木文教]氏によって実施され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⑤一方リーダー[の橘]は、[柱本と合流したハミから]漢王朝から元王朝の間に幹線として使われてきた交通路に沿って、グチェン[古城]とトゥルファン[吐魯番]における組織的な発掘は、B. 青木[青木文教]氏によって実施され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⑤一方リーダー[の橘]は、[柱本と合流したハミから]漢王朝から元王朝の間に幹線として使われてきた交通路に沿って、沙州へと向かうでしょう。… ⑥[一方、橘とハミ・哈密で合流する]柱本氏は、地質と植物調査の目的でトゥルファンから東部天山まで進み、そしてその後、その地域が、かつて湖床を形成していたか[つまり、湖の底であったか]どうかを確認するために、安西方面も調べるでしょう。

とあるように、青木文教、橘瑞超、柱本[瑞俊]が、グチェン[古城]とトゥルファン[吐魯番]、沙州、安西方面に集中して調査をすることを公にしたのである。これは、英国の拒むチベットには行かないことを公にしたに等しい。しかし光瑞は、この公にした計画通りには探検・調査を実施させず、橘だけを内陸アジアに派遣し、グチェン[古城]とトゥルファン[吐魯番]に向かうとした青

46 白須著(2)、165～168頁。

木を、英領インドから密にチベットに向かわせたのである。今度は外交ルートによって英国インド政庁の許可を求めず、英国側を欺いて侵入を謀ったものであった。それは、清国に勃発した辛亥革命(1911~1912)によるチベットの流動化に乗じたもので、青木だけでなく⁴⁷、さらに多田等観も加え、別々に送り込んだものであった。⁴⁸

IX. おわりに

したがって以上の考察によれば、内陸アジアで活動した異国の探検調査隊が、すべて思いのままにそのルートを決定し活動できたとは限らないことになろう。ということは、これらの地域から搬出された歴史・考古資料も、たとえ古代資料であったとしてもこうした近代国際政治社会との相関のなかで認識されるべき一面を持つ、この点を考慮すべきことになろう。

⁴⁷ 白須著(2)、169~171頁、177~180頁。

⁴⁸ 多田については、高本康子『チベット学問僧として生きた日本人—多田等観の生涯』芙蓉書房出版、2012。